

고요하게

창죽성 파복낸 에해파 뜬주노 일엽주 엽소속 주서에 풍복버 랑되림 에신을 시성받 달 리모은 듯여자

이이불 세사의 상과에 은열저 갖매항 시들하 련과며 그내핍 치손박 지의를 앞피반 이맘니 니과자

폭근광당 풍주신 이리께 닥는의 치자탁 거들하 든과니 더억용 옥놀기 보려를 호우주 하는옵 소자소 서를서

마 리 아 마 리 아 성 마 리 아 여